

##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 대학 현장 찾아가 청년 민생 적극 해결!

- 권익위, 오늘부터 한밭대-연세대-부산대에서 이틀간 주거·취업·등록금 등 청년세대 고민 상담
- 고충민원 처리, 제도개선,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해결 방안 모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대학 현장을 찾아가 청년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이하 ‘청춘신문고’)'를 오늘부터 이틀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축제 기간을 맞아 오늘 한밭대, 내일 연세대와 부산대를 방문하여 청년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기로 했다.

□ 행사기간 동안 정승윤 부위원장이 부산대, 김태규 부위원장이 연세대, 박종민 부위원장이 한밭대 총학생회장단을 직접 만나 최근 젊은 세대들의 생각과 고민을 적극 경청한다. 청년세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국민권익위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청년의 고민 해결을 도울 예정이다.

□ 구체적인 행사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학생들은 축제 행사장에 마련되어 있는 ‘국민신문고’를 친 후 현재 겪고 있는 고민이나 정부에 바라는 희망 등을 발언할 기회를 갖는다.

별도의 상담부스 공간에서는 국민권익위 전문 조사관과 2030자문단이 학생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접수한다.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학교측에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해결이 쉽지 않은 고민은 국민권익위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이 제시한 의견 중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의견을 받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국민권익위는 올초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토익 등 공인외국어시험의 성적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을 위해 지난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사건처리는 물론 관련 제도의 개선과 교육 및 컨설팅 업무를 지속해 오고 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청춘신문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기 위해 기획됐다.”면서 “정부와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청년의 고민과 생각이 정부정책과 연결되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       |     |     |                    |
|-------|-------|-----|-----|--------------------|
| 담당 부서 | 홍보담당관 | 책임자 | 과 장 | 양태환 (044-200-7071) |
|       |       | 담당자 | 서기관 | 전진모 (044-200-7075) |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